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

자산운용보고서

2018년 01월 04일 - 2018년 04월 03일

- 이 상품은 [주식형 펀드] 로서,
[추가 입금이 가능한 추가형이고, 다양한 판매보수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종류형 펀드입니다.]
-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Contents

- 왜 글로벌 헬스케어에 투자해야 하는가?
 -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현황 및 전망
 - 포트폴리오 운용현황
 - 펀드의 개요
 - 수익률 현황
 - 자산현황
 - 투자전문인력 현황
 - 비용현황
 - 투자자산매매내역
 -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공지사항
- 〈참고 - 펀드용어정리〉

왜 글로벌 헬스케어에 투자해야 하는가?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은 섹터의 범위를 뛰어넘어 인간 건강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내포하고 있는 8,000조원 이상 규모의 막대한 산업입니다. 세계 경제 여러 분야가 저성장 흐름에 접어들고 있지만, 헬스케어 시장은 성장을 거듭해왔으며 앞으로 고령화 추세를 비롯해 인구구조 변화, 라이프 스타일 변화, 이머징 마켓의 국부증가, 그리고 기술혁신 등의 지속 가능한 펀더멘탈 요인들을 바탕으로 성장성이 가장 유망한 산업 중 하나입니다.

1)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 보유

- **고령화:** 인구 고령화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추세로 비단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40년 후 세계 인구는 현 수준에서 약 1/3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60대 이상의 노년층 인구는 현재의 약 3배 수준인 20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심혈관질환, 관상동맥질환, 암,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인구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년층의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는 그 어떤 연령대 보다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가져온 운동 부족, 스트레스, 고열량 식단 등 서구식 라이프 스타일의 확산은 동서를 막론하고 비만인구의 확대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질병 발생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표 1): 60세 이상 인구 비율 및 지역 추세 (단위: 백만 명)



Source: WHO, World Report on Ageing and Health, 2015

- **기술 혁신:** 의료 기술의 발달과 혁신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으며, 세계인구의 기대수명이 매년 세 달씩 연장 되는 등 건강과 수명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과거에 비해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기술의 혁신과 발전으로 인해 과거에는 치명적이었던 질병들은 걸려도 생존이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질환은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이런 높은 비용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치료법들은 높은 가격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어야 그 가치를 인정 받습니다. 혁신의약품들과 최소침습술과 같은, 현존 치료법 대비 더 높은 효과와 적은 부작용, 높은 치료 편의성과 빠른 회복을 이끌어내는 약물과 치료방법은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진정한 혜택과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전반적 의료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점점 유병인구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기술 혁신을 통해 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전반적 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업들은 경제성장을 뛰어넘는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흥국 수요 증가:** 헬스케어 산업의 또 하나의 큰 성장 동력으로 인구당 소득의 증가로 인한 헬스케어 지출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 시장에서의 경제 개혁 및 중산층 확대는 헬스케어 수요를 증대 시킬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국가별 의료제도 개혁은 헬스케어 업계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시키도록 유도하여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 주목 받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헬스케어 산업은 높은 마진의 혁신적인 치료제와 의료기기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을 제공합니다. 전문 운용 팀의 분석을 통해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장기적 안목을 지닌 투자자들에게 훌륭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2)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수준

글로벌 헬스케어 섹터는 전체 글로벌 증시에서 약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산업으로 (MSCI World Index 기준), 혁신적인 의약품, 의료기기, 서비스를 통한 장기적인 성장이 예상되기에 기술적 타이밍이 아닌 '매수 후 보유 (buy-and-hold)' 전략에 의거한 장기투자가 알맞은 산업입니다. 최근 본 산업의 펀더멘탈과 무관한 시장의 심리적 요인과 글로벌 주식 시장의 섹터순환매에 의한 과도한 가격 조정은 좋은 매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산업 내에서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성장성을 감안할 경우 현재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 중장기적 매력도는 기업의 성장성과 현재 주가 간의 상대적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PEG ratio (주가이익/성장 비율)을 통해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헬스케어 산업 내 하부 섹터들의 PEG ratio가 모두 2배를 하회하고, 일부 섹터는 1배 보다 작은 경우도 있는 반면 S&P 500지수의 경우 2.1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동 산업의 성장성을 감안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표 2): 헬스케어 산업 내 하부섹터 시장 규모 및 밸류에이션

	바이오텍	제네릭	제약	의료기기	서비스
					
글로벌 시장 (원화 기준)	130조	150조	600조	450조	7,000조
매출 성장률	10-15%	6-8%	3%	5-6%	2-10%
P/E 2018E	14x	8x	16x	21x	15x
PEG 2018E	0.8x	0.9x	1.6x	1.6x	0.8x

S&P 500 지수

P/E 2018E	18x
PEG 2018E	1.8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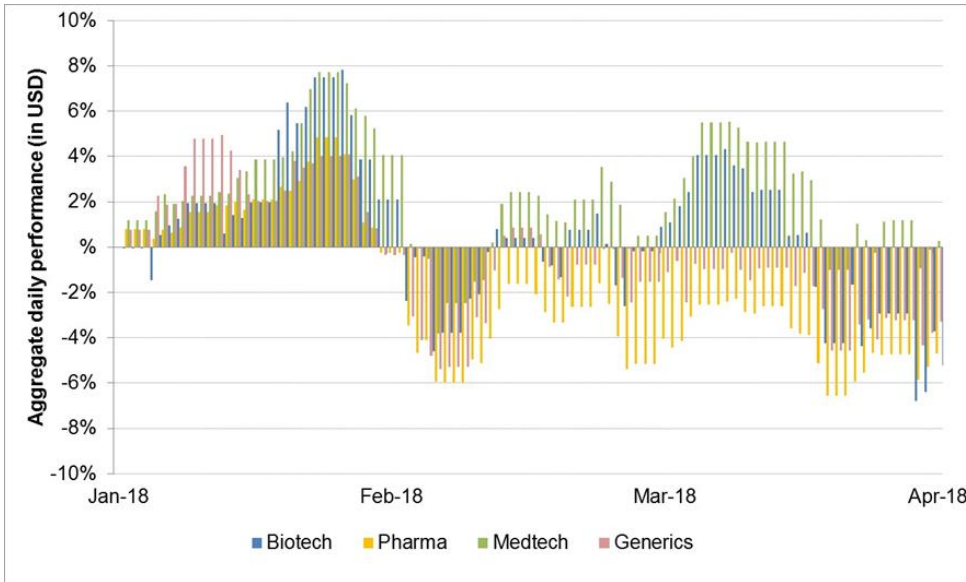
출처: Sources: Bloomberg, BAM Research; PEG = PE 2018/ Earnings growth rates 2015-2019e, Data as of March 1, 2018, Economist Intelligence Unit, World Healthcare Outlook, 2013; Deloitte: 2014 Global health care outlook

결론적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은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큰 비중과 더불어 성장성을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장기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는 필수적인 투자처입니다.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살아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성장성에 맞는 높은 투자 수익이 예상되며 현 가격 수준은 성장성 대비 상당히 저평가 되어 있는 좋은 진입 시점입니다. 또한, 전반적인 의료비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투자는 의료비를 지불하는 입장인 일반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자연적인 헷징 수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현황 및 전망

헬스케어 섹터는 1분기 중 하락세를 나타냈고, 특히 바이오텍 하부섹터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동 분기 중에는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으며 이는 주식시장 전반, 특히 기술섹터 중심의 변동성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약사, 복제약 섹터 등도 하락세를 보였으며, 의료장비 및 서비스는 보합으로 가장 방어적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표3): 헬스케어 내 하부섹터 별 주가 퍼포먼스



출처 : Bloomberg

바이오텍 섹터 리뷰

1분기 중 바이오텍 섹터는 전체 약 40조원 규모의 M&A 거래가 성사되면서 업황에 대한 낙관론이 힘을 얻었습니다. Celgene는 세포치료기술인 CAR-T 파이프라인을 가진 Juno와 Impact Biomedicine을 인수하며 바이오텍 섹터의 인수자로서의 영향력을 과시하였고, 일본의 다케다 제약은 유럽에서 TiGenix를 인수하는가 하면, 프랑스의 Sanofi는 Ablynx를 인수하였습니다. 저희는 금년 중 더 많은 바이오텍 M&A를 예상하고 있는데,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은 CRISPR/CAS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한 유전자 편집, 즉 유전자 치료제 분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임상 분야에서는 지난 분기중 다수의 긍정적인 결과와 몇몇의 부정적인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Nektar Therapeutics는 Bristol-Myers Squibb 와 약 USD 3.6 billion 규모의 기술이전 파트너쉽을 체결을 통해 고품질을 대상으로 동사가 개발 중인 면역자극 사토카인 (immunostimulant cytokine)을 BMS의 anti PD-1 항체와 병용투여하는 임상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Agios Pharmaceuticals는 임상실험 중인 백혈병 치료 후보물질 Idhifa (IDH-2 억제제)의 허가를 비롯한 파이프라인 전반의 뚜렷한 임상적 진전 및 FDA 신약허가 제출로 인해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Portola Pharmaceuticals 는 FDA가 추가적으로 임상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이 알려지면서 큰 주가 하락을 겪었습니다.

의료기기 및 서비스 섹터 리뷰

지난 1분기 하락하는 시장 상황 하에서도 의료장비기술 및 서비스 섹터 지수는 MSCI World 지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시장하락에 대항하여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장비 기업들은 긍정적인2017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하였고, 향후 영업 전망에 대해서도 시장의 기존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의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견조한 실적은 탄탄한 수요와 작년 3분기 미국의 허리케인으로 인한 생산/공급에 차질이 생겨 오더가 밀려있는 상황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의료장비 업계에서 있었던 Varian Medical Systems의 Sirtex 인수거래는 동 업계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소형 기업들이 M&A 시장 활성화에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저희의 예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미 건강보험사들도 역시 2017년 4분기 건조한 실적을 발표하였고 2018년에 대해서도 낮은 보험금 청구액 및 세제개편으로 인한 혜택 등에 힘입어 긍정적 가이던스를 내놓았습니다. 유래없이 심각한 독감유행은 인해 미 병원기업들의 주가는 올랐지만, 반대로 건강보험 업체들의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Cigna는 PBM (미 제약도매) 기업인 Express Scripts의 전격 인수를 발표하며 건강보험업과 의약품 공급체인 간의 통합 모델을 한층 더 심화 및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약/제네릭 리뷰

지난 1분기, 제약 및 복제약 섹터는 전체 주식시장 흐름에 동조하며 높은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제약섹터의 경우 연초 강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하락추세로 반전하였습니다. 대형제약사인 Abbvie는 임상 중에 있는 Rova-T 항암신약후보가 부정적인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큰 폭의 주가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임상실험 결과로 인한 변동성은 제약기업이라면 흔히 겪게 되는 상황이지만, Abbvie는 주요 제품의 특허만료일이 다가오면서 매출하락의 충격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다소 우려가 깊었습니다. 특히, 특허만료예정 제품인 Humira가 세계 최대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의약품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아쉬운 결과로 평가 되었습니다. 한편, 복제약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순탄한 1분기를 보냈습니다. Teva, Mylan, Hikma 등 경쟁이 치열한 미국 제네릭시장의 주요기업들은 힘들었던 2017년을 뒤로하고 반등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아 등 이머징 마켓의 복제약 기업들 역시 실적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ino Biopharmaceutical, CSPC Pharmaceutical, 3SBIO와 같은 중국 업체들은 특히 주목할 만한데, 중국의 경우 의료서비스가 아직 국가 전역에 확산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 이머징 마켓 리뷰

아시아 및 이머징 마켓의 헬스케어 기업들은 2018년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세를 보이며 타 하부섹터 대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다양한 헬스케어 기업들은 훌륭한 분기실적 발표로 인해 전반적인 상승 분위기가 조성되었는데, 중국 전통의약품을 생산하는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의 경우 2017년도 매출액과 이익이 각각 28%와 24% 성장하였습니다. 일본 최대의 제약기업인 다케다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국의 특수 의약품 기업 Shire에 대한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거래의 규모상 다케다 제약으로서는 유상증자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므로, 향후 어떻게 거래를 마무리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요르단의 복제약 기업인 Hikma는 유명 전문경영인이자 복제약 업계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진 Siggí Olufsson을 새로운 CEO로 지명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었습니다.

▶ 운용현황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이하 '펀드')종류A는 [2018.01.04 ~ 2018.04.03] (이하 '1분기') 기간동안 원화기준으로 약 1.0% 상승한 반면 MSCI World Healthcare Index는 4.5% 가량 하락하였습니다.펀드 수익률에 가장 기여도가 컸던 하위섹터는 제약과 의료장비였던 반면, 기여도가 낮았던 분야는 신약개발, 임상서비스 등 생명과학 섹터의 기업들였습니다. 수익률 기여도가 높았던 기업들은 메디톡스, M3 Inc., Genmab,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이었습니다.

메디톡스는 2017년 4분기 시장의 예상과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보툴리눔 독신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91% 성장한 364억원을 기록하였고 2018년 이익전망치로는 전년대비 19.2% 성장한 약 1075억원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공장가동률 상승, 가격이 높은 수출분 상승으로 영업이익률 또한 더욱 높은 수준으로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인 M3는 2월 중순 임상연구 서비스 기업인 미국의 Wake Research에 대한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본 인수거래를 통해 M3는 미국의 임상 서비스 업계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Genmab은 탄탄한 2017년도 실적을 내놓았고, 다발성골수증 (혈액암) 치료제 Darzalex의 2018년 매출액 가이드를 USD 2bn 이상으로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성장성에 대한 일말의 의구심을 잠재웠습니다. 동 사는 향후 12개월간 중요한 임상데이터를 다수 발표할 예정으로, 시장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1분기중 추가하락을 보였던 종목들로는 Cigna, Incyte, Regeneron , Celgene 등이 있었습니다. 혁신을 통해 헬스케어 비용 감소를 목표로 하는 Amazon과 JP Morgan, Berkshire Hathaway의 파트너십은 Cigna와 같은 기존 건강보험업체들에게는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Cigna는 미 제약 PBM업체인 Express Scripts를 인수하기로 발표하였으나, 주식시장은 수익성이 좋지 못한 Express Scripts 인수를 악재로 판단하며 Cigna의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큰 기대를 모았던 Incyte의 피부암 신약후보 Epcadostat와 면역관문억제제 Keytruda와 병용임상시험에서는 전이성 흑색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물의 효력을 테스트했으나, Keytruda 단독요법에 비해 우월한 약효를 입증하지 못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Sanofi와 Regeneron의 습진치료제 Dupixent는 미국에서는 판매를 시작한 후 견조한 실적을 기록 중이지만, 유럽시장에서 다소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Dupixent가 유럽시장에서 본격적인 가속을 낼 수 있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elgene은 재발성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ozanimod의 신약허가에 대해 FDA가 검토자제를 거부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확대시켰습니다.

1월 중 저희 펀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전량 매도하며 큰 폭의 수익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Pra Healthcare, Iqvia Holdings 그리고 Charles River를 전량 매도하여 CRO 관련 기업들에 대한 포지션을 완전히 정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Eli Lilly와 Aetna를 전량 매도하였고, Swedish Orphan, Edwards Life Sciences, 덴티움, Sinopharm, Shangdong Weigao, Sosei를 포트폴리오에 신규 편입하였으며, Vertex와 Allergan을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2월에는 Ligand를 전량 매도하여 차익실현 하였고, Abbvie와 메디톡스의 비중을 축소하였습니다. 한편 Supernus, GN, China Medical System를 신규매수 하였고, 1월 중 편입한 덴티움을 추가매수하여 비중을 늘렸습니다. 3월 중 저희는 Abbvie와 Dexcom을 전량 매도하였고, Cigna와 Celgene에 대해서 비중 축소하는 한편, Supernus, Jazz Pharma, Genmab, Fresenius에 대해서는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Lonza, China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Shanghai Pharm을 신규로 편입하였습니다.

하위섹터별로는 의료기기 및 서비스 섹터가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비중이 높지만, 지난 분기와 비교하였을 때에는 그 비중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중국,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비중은 크게 상승해 유럽 비중을 넘어섰습니다.

▶ 운용전망

바이오시밀러의 큰 파도는 유럽시장에서 거침없이 진격하고 있습니다. Epoetin, Filgrastim과 같은 1세대 바이오치료제에 대한 바이오시밀러들은 이미 시장을 90% 이상 점유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단백질 구조가 복잡해 복제가 훨씬 힘든 2세대 바이오치료제인 항체의약품에 대한 바이오시밀러들도 속속들이 론칭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바이오시밀러들은 보다 빠른 속도로 시장침투를 해나가고 있는데, Roche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Rituxan의 바이오시밀러는 유럽시장 출시 이후 첫 12개월 동안 25%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하며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Roche는 자사 오리지널 제품 대비 값싼 바이오시밀러에 대항하기 위해 기존 정맥주사제품에서 간편하게 개량된 피하주사제품을 내놓았지만, 시장 잠식을 막지는 못하였습니다.

Rituxan 바이오시밀러는 현재 셀트리온의 Truxima와 Sandoz의 Rixathon, 두가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상태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일반적인 재화 시장과 유사하게 시장을 선점하는 제품이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셀트리온의 경우 오리지널 대비 약 30-50% 가량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최초로 진입하여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였습니다. 유럽과 같이 품질을 우선시하는 선진국 시장에서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바이오시밀러들은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받을 기회를 주면서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에 가장 긴 시간 노출 된 유럽은 이제 병원, 보험회사, 그리고 현장의 의료진들 사이에서 바이오시밀러의 처방, 보험처리와 같은 프로세스가 원활히 작동되고 있습니다. 현재 출시된 제품들 이외에도 더 많은 바이오시밀러 후보들이 출시 대기 중에 있는데, 한국의 삼성바이오로직의 경우 유럽시장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Humira 바이오시밀러와 Herceptin 바이오시밀러의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2년 안에 세계 최대의 의약품시장인 미국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전히 해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오텍 섹터에서는 여러 학술/임상 컨퍼런스들이 주가의 등락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분기 중에는 중요한 학회들이 유럽과 북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4월 11일에서 4월15 일 중에는 파리에서 EASL 간질환 학회가 열릴 예정인데, 현재까지 승인된 치료제가 없는 비알콜성 지방간 (NASH) 치료에 관한 새로운 임상데이터들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어 학계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동 학회에서는 Gilead Sciences, Intercept, Allergan, Genfit, Madrigal 등이 참가해 투자자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Alynlam은 유전적 헤모글로빈 형성이상으로 인한 급성 포르피린증(혈액질환의 일종으로 근육통, 방향감각상실, 정신착란 등을 일으킴) 치료제인 Givosiran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4월 14일에서 4월 18일 중에는 중요한 항암학회인 AACR (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학회가 제 110번째 연례 행사를 시카고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의 핵심 토픽은 “차가운 종양 (cold tumor)”을 뜨거운 종양 (hot tumor)으로 바꾸는 기술인데, 면역체계가 타겟하지 못하는 종양을 면역체계가 공격할 수 있도록 바꾸는 기술입니다. AACR에서는 Bristol-Myers Squibb, Merck&Co, AstraZeneca와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과 Tesaro, Dynavax, Newlink, Innate Pharma와 같은 바이오텍들의 발표가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는 세계 최대의 항암 학회인 ASCO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가 시카고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ASCO에서는 백혈병 치료를 위한 CAR-T 세포치료에 관한 임상자료 업데이트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존의 플레이어인 Celgene과 bluebird bio 이외에도, Collectis, Bellicum, Ziopharma-Intrexon과 같은 기업들이 개발 중인 개량된 CAR-T 기술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Incyte와 Merck가 공동개발 중인 IDO 억제제 신약임상 데이터 역시 이번 행사에서 관심을 받는 대상 중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Roche, Merck KGaA, Regeneron, Beigene, Tesaro와 같은 기업들이 발표하는 면역관문억제제 임상 업데이트 자료도 큰 관심거리 중 하나입니다.

의료장비 섹터에서는 지난 분기 중 중요한 신규허가들이 있었습니다. 2월 중 글로벌 의료장비기업 Edwards Lifesciences는 자가팽창하는 대동맥 인공심장판막 Centera에 대해 고위험군 환자 대상 판매허가를 유럽 허가당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수한 임상실험 결과에 의해 본 인공심장판막은 최소 2인의 수술진이 요구되었던 기존 제품 대비, 위급한 상황에 1명의 의사가 수술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dwards Lifesciences는 Centera를 통해 경쟁사 Medtronic으로부터 시장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달 후인 3월 중 동사는 인공심장판막 신제품인 Sapien 3에 대해 저위험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임상실험의 모든 환자들이 치료를 완료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Sapien 3는 2019년 말 즈음 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시판 후 동사의 대상 시장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FDA는 Abiomed의 심장펌프 시스템인 Impella의 대상환자 선택기준을 완화시켜주었습니다. 동 제품은 고위험군 관상동맥질환 환자들에게 개흉수술 없는 경피삽입술을 통해 시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박출계수 (heart's ejection fraction)를 더 이상 환자선택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FDA의 이번 결정을 통해 Impella는 대상환자군이 넓어지며 동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3월 말에는 Dexcom의 통합 연속혈당 모니터링 장비 (iCGM) G6 센서가 FDA로부터 판매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허가를 통해 G6 센서가 인슐린 펌프나 스마트펜 등의 당뇨병 환자용 의료장비들과 상호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환자들은 더 이상 번거로운 손가락 채혈을 통해 장비설정을 조율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시장에서 G6의 출시는 금년 2분기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시장 타이밍을 노리지 않고 벤치마크 지수에 연연하지 않는, 철저히 기업 펀더멘탈에 기초한 장기투자전략을 구사하는 바텀업 (Bottom-Up) 투자자로서, 글로벌 헬스케어 섹터에서 비롯되는 투자기회들은 그러한 철학과 전략 하에서만 제대로 포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구성해 놓은 포트폴리오는 시장의 높은 변동성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수준으로 다변화 되어 있음을 본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확신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각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헬스케어 전체 시장의 성장을 상회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저희 펀드의 포트폴리오는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좋은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텍 임상시험의 장이 되어가는 중국

중국의 바이오텍 기업들은 날이 갈수록 고무적인 환경으로 진입해가고 있습니다. 전통 중의학은 현대화를 통해 더욱 활용도를 높여가는 한편, 서구의학의 연구개발 방법도 함께 도입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국의 의료당국은 새로운 의학기술의 도입과 함께 관련 법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신약허가 프로세스를 더욱 가속화 시키기 위해 중국의 허가당국은 임상시험 감독인원을 기존 약 100명에서 800여 명 이상으로 늘렸고, 2020년까지 1,6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신약기술의 특허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신약기술 특허는 평균 20년인데, 약 12년 정도가 임상시험과 허가 프로세스에 소요되면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 만든 신약들이 고작 8년 밖에 특허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에 변화가 오게 된다면, 빨라진 허가 프로세스와 더불어 혁신적 신약기업들에게 커다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 할 것입니다.

이런 우호적인 트렌드는 자본시장 쪽에서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홍콩증권거래소는 바이오텍 기업들의 상장요건을 완화시켜주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는데, 만약 시행된다면 수백여개의 바이오텍 기업들의 상장 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바이오텍 기업들은 다양한 신약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도출해내고 있는데, 특히 장안의 화제인 면역항암을 비롯한 항암신약 분야의 파이프라인에 대해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만 약 200여개의 CAR-T 세포치료제들의 신약임상이 진행 중에 있고, 이중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낸 후보가 최종 허가까지 이어지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의 신약개발 비용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수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신약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펀드의 개요



펀드위험등급	
1	매우 높은위험
2	높은위험
3	다소높은위험
4	보통위험
5	낮은위험
6	매우낮은위험

▶ 기본정보 적용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험등급 저위험

펀드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		B9467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A		B9468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Ae		B9469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1		B9470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2		B9471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3		B9472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e		B9475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S		B9477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F		B9480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W		B9483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P		B9484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P2		B9486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S-P		B9488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Pe		B9490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Pe2		BT365	
펀드의 종류	투자신탁, 증권펀드(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최초설정일	2016.01.04
운용기간	2018.01.04 - 2018.04.03	존속기간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자산운용회사	메리츠자산운용	판매회사	하나은행, 메리츠증권증권, 미래대우증권 외 21개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	국민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한아이타스
상품의 특징			
<p>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펀드는 헬스케어분야에서 20년 이상의 운용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럽 최대규모의 헬스케어 전문운용사인 밸류자산운용과 메리츠자산운용이 공동으로 운용하며, 전 세계의 유망한 헬스케어 기업에 장기투자하여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합니다.</p> <p>주) 펀드의 자세한 판매회사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http://dis.fundservice.net], 운용사 홈페이지 [www.meritzam.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 재산현황

(단위: 백만원, %)

※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펀드명칭	항목	전 기 말			증감률
		16,692	17,007	1.89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	자산총액	16,692	17,007	1.89	
	부채총액	49	98	102.30	
	순자산총액	16,644	16,909	1.59	
	기준가격	960.39	974.14	1.43	
종류(Class)별 기준가격 현황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A	기준가격	930.06	939.60	1.03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Ae	기준가격	935.66	945.97	1.10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1	기준가격	917.25	925.05	0.85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2	기준가격	1,000.00	1,008.79	0.88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3	기준가격	-	1,003.80	-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e	기준가격	931.96	941.75	1.05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S	기준가격	936.59	947.03	1.11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F	기준가격	957.99	969.20	1.17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W	기준가격	999.76	1,011.54	1.18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P	기준가격	931.00	940.67	1.04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P2	기준가격	950.58	960.57	1.05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S-P	기준가격	938.08	948.72	1.13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Pe	기준가격	936.25	946.63	1.11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Pe2	기준가격	992.81	1,003.87	1.11	

주)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펀드를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분배금내역

(단위: 백만원, 백만좌)

※해당사항 없음

수익률 현황

▶ 기간수익률

(단위: %)

펀드명칭	최근3개월	최근6개월	최근9개월	최근12개월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18.01.04 ~ 18.04.03	17.10.04 ~ 18.04.03	17.07.04 ~ 18.04.03	17.04.04 ~ 18.04.03	16.04.04 ~ 18.04.03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주식] (비교지수대비 성과)	1.43 (5.91)	-2.14 (8.32)	-2.96 (4.64)	6.27 (4.66)	6.55 (0.07)	-	-
비 교 지 수	-4.48	-10.46	-7.60	1.61	6.48	-	-
종류(Class)별 현황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주식]종류A (비교지수대비 성과)	1.03 (5.51)	-2.92 (7.54)	-4.13 (3.47)	4.59 (2.98)	3.19 (-3.29)	-	-
비 교 지 수	-4.48	-10.46	-7.60	1.61	6.48	-	-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주식]종류Ae (비교지수대비 성과)	1.10 (5.58)	-2.78 (7.68)	-3.91 (3.69)	4.90 (3.29)	3.81 (-2.67)	-	-
비 교 지 수	-4.48	-10.46	-7.60	1.61	6.48	-	-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주식]종류C1 (비교지수대비 성과)	0.85 (5.33)	-3.26 (7.20)	-4.63 (2.97)	3.90 (2.29)	1.77 (-4.71)	-	-
비 교 지 수	-4.48	-10.46	-7.60	1.61	6.48	-	-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주식]종류C2 (비교지수대비 성과)	0.88 (5.36)	-3.20 (7.26)	-4.53 (3.07)	4.01 (2.40)	-	-	-
비 교 지 수	-4.48	-10.46	-7.60	1.61	-	-	-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주식]종류C3 (비교지수대비 성과)	-	-	-	-	-	-	-
비 교 지 수	-	-	-	-	-	-	-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주식]종류Ce (비교지수대비 성과)	1.05 (5.53)	-2.87 (7.59)	-4.05 (3.55)	4.70 (3.09)	3.40 (-3.08)	-	-
비 교 지 수	-4.48	-10.46	-7.60	1.61	6.48	-	-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주식]종류S (비교지수대비 성과)	1.11 (5.59)	-2.75 (7.71)	-3.87 (3.73)	4.96 (3.35)	3.91 (-2.57)	-	-
비 교 지 수	-4.48	-10.46	-7.60	1.61	6.48	-	-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주식]종류CF (비교지수대비 성과)	1.17 (5.65)	-2.64 (7.82)	-3.71 (3.89)	-	-	-	-
비 교 지 수	-4.48	-10.46	-7.60	-	-	-	-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주식]종류CW (비교지수대비 성과)	1.18 (5.66)	-2.63 (7.83)	-3.69 (3.91)	5.22 (3.61)	4.44 (-2.04)	-	-
비 교 지 수	-4.48	-10.46	-7.60	1.61	6.48	-	-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주식]종류C-P (비교지수대비 성과)	1.04 (5.52)	-2.90 (7.56)	-4.09 (3.51)	4.65 (3.04)	3.29 (-3.19)	-	-
비 교 지 수	-4.48	-10.46	-7.60	1.61	6.48	-	-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주식]종류C-P2 (비교지수대비 성과)	1.05 (5.53)	-2.88 (7.58)	-4.06 (3.54)	4.69 (3.08)	3.39 (-3.09)	-	-
비 교 지 수	-4.48	-10.46	-7.60	1.61	6.48	-	-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비교지수대비 성과)	1.13 (5.61)	-2.71 (7.75)	-3.82 (3.78)	5.04 (3.43)	4.08 (-2.40)	-	-
비 교 지 수	-4.48	-10.46	-7.60	1.61	6.48	-	-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주식]종류C-Pe (비교지수대비 성과)	1.11 (5.59)	-2.76 (7.70)	-3.89 (3.71)	4.94 (3.33)	3.87 (-2.61)	-	-
비 교 지 수	-4.48	-10.46	-7.60	1.61	6.48	-	-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종류C-Pe2 (비교지수대비 성과)	1.11 (5.59)	-2.75 (7.71)	-	-	-	-	-
비 교 지 수	-4.48	-10.46	-	-	-	-	-

▶ 추적오차

(단위: %)

※해당사항 없음

▶ 손익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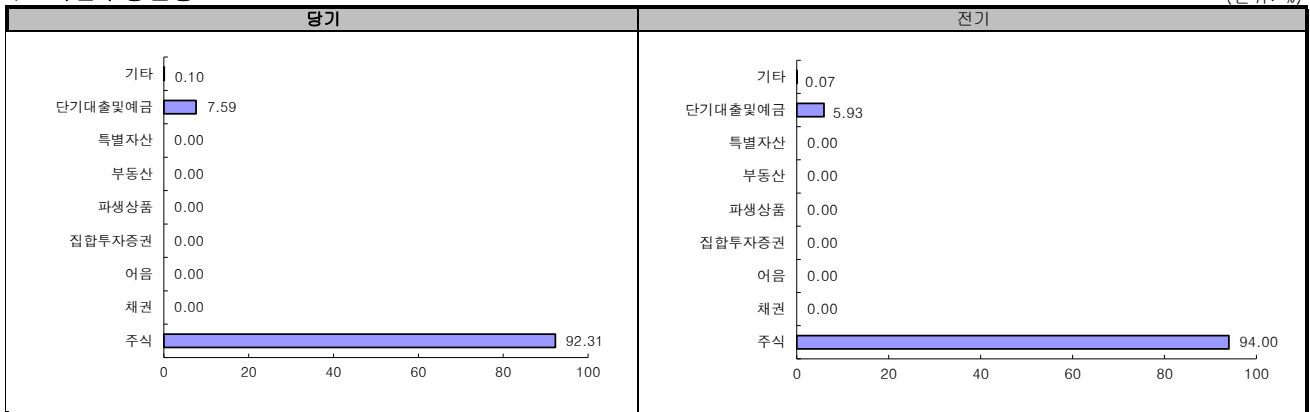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 금	기타	손익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전기	-487	-	-	-	-	-	-	-	-	1	-108	-594
당기	1,069	-	-	-	-	-	-	-	-	2	-830	241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792 (4.66)	-	-	-	-	-	-	-	-	593 (3.48)	17 (0.10)	1,402 (8.24)
CHF	324 (1.90)	-	-	-	-	-	-	-	-	-	-	324 (1.90)
DKK	1,299 (7.64)	-	-	-	-	-	-	-	-	-	-	1,299 (7.64)
EUR	1,450 (8.52)	-	-	-	-	-	-	-	-	-	-	1,450 (8.52)
GBP	546 (3.21)	-	-	-	-	-	-	-	-	-	-	546 (3.21)
HKD	1,838 (10.81)	-	-	-	-	-	-	-	-	-	-	1,838 (10.81)
JPY	1,686 (9.91)	-	-	-	-	-	-	-	-	-	-	1,686 (9.91)
SEK	374 (2.20)	-	-	-	-	-	-	-	-	-	-	374 (2.20)
TWD	-	-	-	-	-	-	-	-	-	-	-	-
USD	7,393 (43.47)	-	-	-	-	-	-	-	-	698 (4.10)	-	8,090 (47.57)
합계	15,700 (92.31)	-	-	-	-	-	-	-	-	1,290 (7.59)	17 (0.10)	17,007 (100.00)

* (): 구성 비중

** 외화자산은 통화별로 구분하여 원화평가액을 기재하였으며, 이를 위해 기준일 현재 외국환중개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재정환율을 기재하였습니다.

▶ 환헤지에 관한 사항

환헤지란?	환헤지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줄이는 것을 말하며, 환헤지 비율은 기준일 현재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외화자산의 평가액 대비, 환헤지 규모를 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펀드는 투자대상 국가의 통화에 대해서는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통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투자설명서상의 목표 환헤지 비율	기준일(2018.04.03) 현재 환헤지 비율	(2018.01.04 ~ 2018.04.03) 환헤지 비용	(2018.01.04 ~ 2018.04.03) 환헤지로 인한 손익
-	-	-	-

▶ 환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 해당사항 없음

▶ 주요자산보유현황

※ 펀드자산 총액에서 상위 10종목, 자산총액의(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평가액) 5% 초과 보유종목 및 발행주식 총수의 1% 초과 종목의 보유내역을 보여줍니다.

※ 보다 상세한 투자대상자산 내역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펀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서 조회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본 자산운용보고서와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식 - Long(매수)

(단위: 주, 백만원, %)

종 목 명	보유수량	평가액	비중	비고
UNITEDHEALTH GROUP INC(USD)	3,000	687	4.03	미국/Health Care Providers & Services
JAZZ PHARMACEUTICALS PLC(USD)	4,400	679	3.99	아일랜드/Pharmaceuticals
ABBOTT LABORATORIES(USD)	11,000	675	3.96	미국/Health Care Equipment & Supplies
EVOTEC AG(EUR)	32,000	661	3.88	독일/Life Sciences Tools & Services
M3 Inc(JPY)	13,700	653	3.84	일본/Health Care Technology
Centene Corporation(USD)	5,300	594	3.49	미국/Health Care Providers & Services
GENMAB A/S(DKK)	2,600	589	3.46	덴마크/Biotechnology
SHIRE PLC(GBP)	10,300	546	3.20	영국/Biotechnology

주1) 외화자산의 경우 비교란에 상장국가, 업종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 주식 - Short(매도)

※해당사항 없음

▶ 채권

※해당사항 없음

▶ 어음

※해당사항 없음

▶ 집합투자증권

※해당사항 없음

▶ 장내파생상품

※해당사항 없음

▶ 장외파생상품

※해당사항 없음

▶ 부동산(임대)

※해당사항 없음

▶ 부동산 - 자금대여/차입

※해당사항 없음

▶ 특별자산

※해당사항 없음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비고
예치금	USD Deposit		698	0.00		-
콜론	DB금융투자	2018.04.03	554	1.57	2018.04.04	-

▶ 기타자산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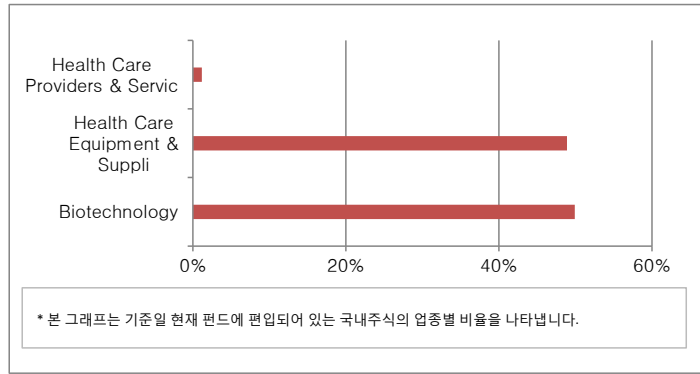
▶ 업종별(국내주식) 투자비중 - Long(매수)

(단위: 백만원, %)

	업종명	평가액	보유비율
1	Biotechnology	395	49.92
2	Health Care Equipment & Suppli	387	48.89
3	Health Care Providers & Servic	9	1.19
합 계		792	100.00

주) 보유비율=평가액/총평가액*100

주) 업종기준은 블룸버그 기준



▶ 업종별(국내주식) 투자비중 - Short(매도)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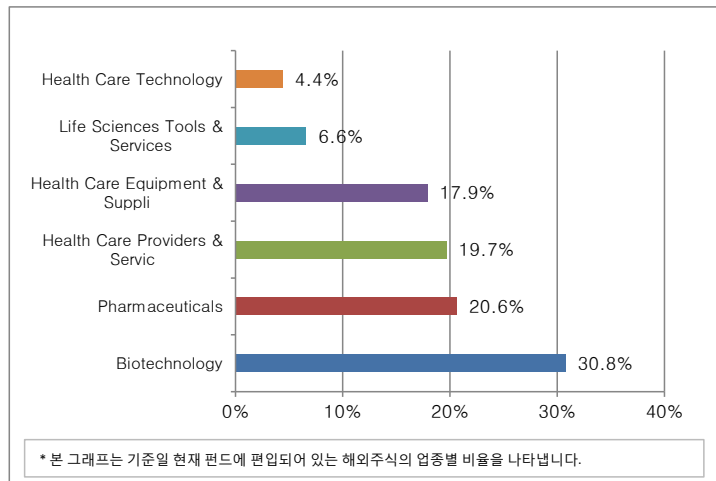
▶ 업종별(해외주식) 투자비중

(단위: 백만원, %)

	업종명	평가액	보유비율
1	Biotechnology	4,588	30.78
2	Pharmaceuticals	3,077	20.64
3	Health Care Providers & Servic	2,936	19.69
4	Health Care Equipment & Suppli	2,669	17.90
5	Life Sciences Tools & Services	985	6.61
6	Health Care Technology	653	4.38
합 계		14,908	100.00

주) 보유비율=평가액/총평가액*100

주) 업종기준은 블룸버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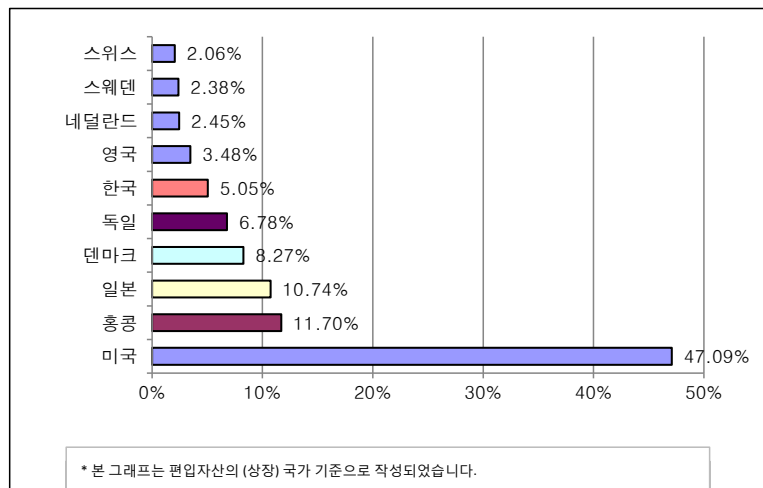
▶ 국가별 투자비중

발행(상장)국가별 투자비중

* 일부 해외종목의 경우 거래소 상장국가와 실제 발행국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국가	비중(%)
미국	47.09
홍콩	11.70
일본	10.74
덴마크	8.27
독일	6.78
한국	5.05
영국	3.48
네덜란드	2.45
스웨덴	2.38
스위스	2.06

주) 상장된 국가별 투자비중으로 분류



투자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역원)

성명	운용개시일	직위	운용중인 다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주요 경력 및 운용내역	협회등록번호
			펀드 개수	운용 규모	개수	운용 규모		
홍주연	2016.01.04	책임운용전문인력	2	118	1	14	- 메리츠자산운용 Portfolio Manager(Global Investment) -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 주식운용 애널리스트 - 도이치투자신용 주식운용 애널리스트 - Asian Strategic Partners 투자자문	2113000536
조창호	2018.02.26	부책임용인력	1	104	-	-	- 메리츠자산운용 Global Investment 애널리스트, 매니저 (현재)	2117000814

주)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운용전문인력이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운용전문인력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이사 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2)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Global Investment팀이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관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3) 이 집합투자기구는 Global Investment팀의 공동운용방식으로 운용되며, 따라서 책임운용전문인력의 변경으로 인해 동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이사결정 등이 변동되는 영향을 알려드립니다.

※ 펀드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구분	운용기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운용전문인력
홍주연	2016.01.04 - 2018.02.26	홍주연	-
Global Investment팀	2018.02.26 - 현재	홍주연	조창호

(주 1) 2018.4월 기준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 해외 투자운용전문인력

성명	직위	운용기간	주요 경력 및 운용내역
Oliver Kubli	Managing Director	2016.01.04~현재	2008년~현재 : Bellevue Asset Management AG 글로벌 헬스케어 운용팀장 / Managing Director 2001년~2007년 : Züricher Kantonalbank 선임운용역 1998년~2000년 : Swiss Re Investors 유럽 주식운용역

▶ 해외 위탁운용

해외위탁운용사	소재국가	위탁업무의 범위
Bellevue Asset Management AG [벨뷰자산운용]	Switzerland	Bellevue Asset Management AG(BAM)와 메리츠자산운용이 공동운용하는 구조임 - 펀드 운용 및 운용지시 - 리서치업무

비용현황

▶ 보수 및 비용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펀드 명칭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	자산운용회사	39.15	0.24	39.73	0.23	
	판매회사	종류A	8.29	0.15	8.33	0.15
		종류Ae	1.05	0.08	1.01	0.07
		종류C1	1.32	0.33	1.34	0.32
		종류C2	10.08	0.29	5.81	0.28
		종류C3	-	-	2.58	0.20
		종류Ce	1.17	0.13	1.15	0.12
		종류S	0.71	0.06	0.74	0.06
		종류CF	0.00	0.01	0.01	0.01
		종류CW	-	-	-	-
		종류C-P	1.39	0.14	1.39	0.14
		종류C-P2	2.02	0.13	2.27	0.12
		종류S-P	0.12	0.04	0.12	0.04
		종류C-Pe	0.29	0.07	0.33	0.07
	종류C-Pe2	0.08	0.06	0.14	0.06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1.44	0.01	1.46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82	0.01	0.84	0.01	
	보수 합계	67.95	1.73	67.25	1.89	
	기타비용**	1.35	0.01	1.36	0.01	
	매매·중개수수료	단순매매·중개 수수료	10.57	0.07	6.81	0.04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03	0.00	0.10	0.00	
합계		10.61	0.07	6.91	0.04	
	증권거래세	0.97	0.01	1.88	0.01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 수수료는 제외된 것입니다.

※ 성과보수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총보수비용 비율**

(단위: 연환산, %)

펀드 명칭	구분	해당 펀드			상위펀드 비용 합산		
		총보수·비용 비율(A)	매매·중개수수료비율(B)	합계(A+B)	총보수·비용 비율(A)	매매·중개수수료비율(B)	합계(A+B)
메리츠글로벌밸런스케어증권투자신탁 [주식]	전기	0.03	0.26	0.29	0.03	0.26	0.29
	당기	0.03	0.17	0.20	0.03	0.17	0.20
종류(class)별 현황							
메리츠글로벌밸런스케어증권투자신탁 [주식]종류A	전기	1.61	-	1.61	1.64	0.26	1.90
	당기	1.61	-	1.61	1.64	0.17	1.80
메리츠글로벌밸런스케어증권투자신탁 [주식]종류Ae	전기	1.31	-	1.31	1.34	0.26	1.60
	당기	1.31	-	1.31	1.34	0.17	1.50
메리츠글로벌밸런스케어증권투자신탁 [주식]종류C1	전기	2.30	-	2.30	2.34	0.25	2.59
	당기	2.30	-	2.30	2.34	0.16	2.50
메리츠글로벌밸런스케어증권투자신탁 [주식]종류C2	전기	2.16	-	2.16	2.19	0.26	2.45
	당기	2.16	-	2.16	2.19	0.17	2.36
메리츠글로벌밸런스케어증권투자신탁 [주식]종류C3	전기	-	-	-	-	-	-
	당기	1.81	-	1.81	1.84	0.16	2.00
메리츠글로벌밸런스케어증권투자신탁 [주식]종류Ce	전기	1.51	-	1.51	1.54	0.26	1.80
	당기	1.50	-	1.50	1.54	0.17	1.70
메리츠글로벌밸런스케어증권투자신탁 [주식]종류S	전기	1.26	-	1.26	1.29	0.26	1.55
	당기	1.26	-	1.26	1.29	0.16	1.45
메리츠글로벌밸런스케어증권투자신탁 [주식]종류CF	전기	1.03	-	1.03	1.07	0.24	1.30
	당기	1.03	-	1.03	1.07	0.16	1.23
메리츠글로벌밸런스케어증권투자신탁 [주식]종류CW	전기	1.00	-	1.00	1.04	0.26	1.29
	당기	1.00	-	1.00	1.04	0.16	1.20
메리츠글로벌밸런스케어증권투자신탁 [주식]종류C-P	전기	1.56	-	1.56	1.59	0.26	1.84
	당기	1.56	-	1.56	1.59	0.17	1.75
메리츠글로벌밸런스케어증권투자신탁 [주식]종류C-P2	전기	1.51	-	1.51	1.54	0.25	1.79
	당기	1.51	-	1.51	1.54	0.16	1.70
메리츠글로벌밸런스케어증권투자신탁 [주식]종류S-P	전기	1.18	-	1.18	1.21	0.25	1.46
	당기	1.18	-	1.18	1.21	0.16	1.37
메리츠글로벌밸런스케어증권투자신탁 [주식]종류C-Pe	전기	1.27	-	1.27	1.31	0.25	1.55
	당기	1.27	-	1.27	1.31	0.17	1.48
메리츠글로벌밸런스케어증권투자신탁 [주식]종류C-Pe2	전기	1.25	-	1.25	1.29	0.23	1.51
	당기	1.25	-	1.25	1.29	0.16	1.45

주1) 총보수, 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총액을 순자산 연평 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주2)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주3) 모자형의 경우 모펀드에서 발생한 비용을 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율대로 안분하여 합산한 수치입니다.

투자자산매매내역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을**

(단위: 주, 백만원, %)

메리츠글로벌밸런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

매 수		매 도		매매회전율 ^(주1)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해당기간	연환산
1,026,700	4,149	37,717	4,376	27.71	112.38

주1) 해당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

▶ **최근3분기 매매회전을 추이**

(단위: %)

2017.04.04 ~ 2017.07.03	2017.07.04 ~ 2017.10.03	2017.10.04 ~ 2018.01.03
21.85	21.78	22.86

주) 매매회전율이 높을 경우 매매거래수수료(0.1%내외) 및 증권거래세(매도시 0.3%) 발생으로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펀드 비용이 증가합니다.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단위: 백만원, %)

펀드명칭	메리츠글로벌밸런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3	
	투자금액	수익률
	1,000	-6.39

주) 투자금액 및 수익률은 자산운용사의 운용전략에 따라 추가설정(환매)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금액 및 수익률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 * 고객님의 가입하신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메리츠글로벌밸런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의 자산운용회사인 [메리츠자산운용]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국민은행]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 * 투자자의 계좌별 수익률 정보는 판매회사의 HTS나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각종 보고서 확인 : 메리츠자산운용 www.meritzam.com
 금융투자협회 <http://dis.fundservice.net>

참 고 : 펀드 용어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을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50%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대상의 제한을 받지않는 펀드입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50%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50%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에게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판매회사	펀드의 판매, 환매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를 말하며,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	펀드 일반사무관리업자의 위탁을 받아 기준가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회사간의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